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1993년도 회지

제 3 호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The New England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NEKCL)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by a group of Korean-Americans concerned about the Korean-American community's lack of a coherent political voice.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help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To these ends, NEKCL has run voter registration within Korean-American community, collaborated with other Asian-American groups, and supported Korean cultural events in the New England region. Furthermore, the League has pledged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by lobbying for laws that enhance Korean-American rights and supporting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NEKCL is committed to the belief that a truly just, democratic society cannot exist if all the people in the country are not fully represented.

The insignia was designed by Douglas D. Wohn & CADD by Kija Kim

Journal, the 3rd Publication (1993)

Published By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173

Tel.: (617) 861-0437

December, 1993

Publisher Eun Han Kim

Editor Moon So Kim

Editorial Board Michael Myungki Kim (Chief), Yangkil Kim, Hong Kyun Choi, Yung Hoon Choi

시민 협회 회지, 제 3호 (1993년)

발행처 /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발행일 / 1993년 12월

발행인 / 김 은한

편집인 / 김 문소

편집 위원장 / 김 명기

편집 위원 / 김 양길, 최 홍균, 최 영훈

비매품

Page 2. Asia/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President William Clinton)

3. 발간사 회장 김 은 한

4. 격려사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 안 종 구

5. 격려사 뉴 잉글랜드 한인회 회장 김 영 하

6. 시민 협회 활동 보고 이사장 김 문 소

8. 높은 곳을 향하여, 넓은 땅을 찾아서 전임 회장 김 영 집

9. 시민 협회의 비전. 부회장 송 남 수

10. 제 3차 총회 소식 (정리 최 홍균 총무)

11. 제 11차 이사회 소식 (정리 최 홍균 총무)

12. 김 창준 연방 하원의원 강연 초록. (정리 최 홍균 총무)

15. Speech at First Annual Korean American Conference. . . Mr. Seung Hoon Choi

17. 재정 보고서 재무 권 용 태

18. Speech at First Annual Korean American Conference. Ms. Kija Kim

21.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1993년 12월 1일 현재)

24. 협회 회원 명단 및 주소록. (1993년 12월 1일 현재)

27. '94년도 협회 예산서 (회장단)

감사의 말씀

회비를 납부하여주신 회원 여러분과 이사회비, 찬조금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협회지 제 3호 발간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후원해주신 아랫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라 식당	(617) 547-7971	코리아 여행사	(508) 634-8882
Classic Billiard	(508) 689-9800	신 영목 치과	(617) 265-5606
YOKOHAMA	(508) 689-4047	신신 식품	(508) 686-0813
범아 여행사	(617) 482-6237	SOONER Lube	(508) 858-0070
보스톤 보석	(617) 723-7979	임 나경 상담소	(617) 738-9622
PSI	(617) 547-0211	보스톤 한아름	(617) 547-8723
Jay Lee Realty	(617) 236-0960	뉴욕 식품	(617) 868-9850
Allston TV	(617) 787-1667	코리아나	(617) 576-8661
우촌	(617) 623-3313	아리랑	(617) 536-1277
Charles Hur 치과	(617) 861-8978	국제 보석상	(617) 426-9114



Asian/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1993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Proclamation

This month we honor the heritage and history of Asian and Pacific Americans and the contributions they have made to our country: to its economic development, its cultural wealth, its scientific and medical achievements, its institutes of education, and its government. As we celebrate the diversity of our people and their heritage, we remember that we are one Nation, united in a common quest for freedom and dignity.

Trader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reached North America as early as the 16th century, but the first significant wave of immigration began during the late 1800s. From China, Japan, Korea, the Philippines, and the Indian subcontinent they came and found work in America: as miners, railroad workers, farmers, and merchants. These settlers and their children preserved the rich legacy of their homelands while also learning the history of our Nation and embracing the traditions that define it.

While they found many opportunities in America, immigrant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also were victims of discrimination. Some were denied the right to buy land or become naturalized citizens solely because of their ethnic origin. Such prejudice often led to segregated community structures. Once thought of as ghettos, these neighborhoods are now vibrant cultural assets and magnets for tourism and trade in the cities of which they are a part.

America has made great progress in advancing civil rights since the days when Asian workers were exploited and labored under crushing hardship. A second significant wave of immigration brought doctors, nurses, engineers, musicians, scientists, and other professionals. Now-familiar names like Yo Yo Ma, Midori, Seiji Ozawa, Amy Tan, Michael Chang, and Kristi Yamaguchi today symbolize the rich heritage that Asian and Pacific Americans have added to our culture.

Today Asian and Pacific Americans represent a large portion of our population. The region from which they migrated is now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areas of economic growth. America's trade with Asian and Pacific countries totals more than \$300 billion, a greater amount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lliances with countries from the Pacific such as Japan, Kore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e will continue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free markets there. The security of our allies and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Asia and the Pacific benefit both our country and the countries of that region.

America is an ongoing experiment, an unfinished work.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ally strive to fulfill the ideals that attracted the Asian/Pacific peoples and other immigrants to our shores. The next century will present many challenges, but the ethnic diversity that binds us as a Nation will provide us with the energy and hope we need to build a more peaceful and more prosperous world. To honor the achievements of Asian/Pacific Americans and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o our Nation, the Congress, by Public Law 102-450, has designated the month of May of each year as "Asian/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NOW, THEREFORE, I, WILLIAM J. CLIN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 hereby proclaim the month of May 1993 as Asian/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I call up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o observe this occasion with appropriate programs, ceremonies, and activities. I also call upon all Americans to rededicate themselves to the principles of inclusion, mutual respect, and social justice.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hird day of May, in the year of our Lord nineteen hundred and ninety-three,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seventeenth.

William J. Clinton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가 1991년 10월에 창립된 이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임 김 영집 회장님, 김 문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이사님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 협회는 질과 양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서 시작한 본격적인 한국계 미주 이민 역사에서, 우리는 유대인 미주 이민 역사에 버금가는 큰 성공을 거두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타 민족으로부터 대단한 찬사 및 그에 맞서는 억울한 질시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L.A. 사건과 같은 엄청난 수난도 당하여야 했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겪어야 합니다.

사건의 원인과 해결을 가지고 많은 시시비비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일관성 있는 핵심의 파악과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정답이 한가지가 아니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인과 비슷한 이민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한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도 L.A. 사건이 있었으며 주위로부터 돈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종족으로 비난 받아 왔지만, 그 이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론에 많이 진출하였으며 비영리 재단의 설립으로 미국 사회에 진출하여, 지금과 같은 성공적인 정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주는 20억 불의 원조에 누구 하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유권자 등록, 선거 참여, 한국계 미국인의 권익 보장의 순서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협회는 2년전 부터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데 비하여 성과가 미미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만도 몇 년씩 걸린다면 우리들의 권익을 위하는 일은 언제쯤에나 시작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계 미국 시민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은 배로 목적지를 향하여 나갈 것 입니다. 다 같이 노를 젓지 아니 하면 안됩니다.

한달 후에 등록 하시겠다고 미루면 아마 못 하실 것입니다. 내일 당장 Town Hall에 가서 등록을 합시다. 내년 시민권자 협회지에, 이제 등록은 다 했으니 다음 단계의 일을 하자고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FINANCIAL CENTRE, BOSTON, MA 02111
 TEL. (617) 348-3660 • FAX. (617) 348-3670

최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숫자는 150만에 이르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세들의 사회 진출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미국 사회를 일컬어 여러 민족이 융합하여 이루어진 다민족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 민족이 각자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면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생활 방식도 존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민족이 자기 "뿌리"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리고 주류 사회로부터 홀대를 받게 되는 것이 다민족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90년대 들어 여러 한인 단체 교회, 한인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주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의 발족과 그간의 활동은 매우 특기할만한 예입니다. 권익 신장을 위한 미국 정치에의 참여 노력, 한족 친선 도모,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 사업 추진 등 시민 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행동이 잘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선봉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수용하는 겸양의 자세와 함께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스스로 주장하고 보호하면서, 공동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훌륭한 거주국 시민으로 성장, 독립, 발전해 나아가시도록 계속 성원코자 합니다.

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포들은 경제적 안정과 자녀 교육에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으나 미국 주류 사회에의 참여에는 다소 관심을 덜 가지신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전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재미 동포 사회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한미관계의 장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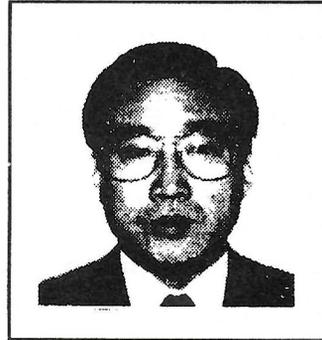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지역 동포들의 지속적인 협회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Korean 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1011 CENTRE STREET.
NEWTON, MASSACHUSETTS 02159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의 회지 제 3호를 발간할 수 있도록 시민 협회에 협조하시는 각 기관 및 단체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시민 협회를 위해 물심 양면 협조하시던 몇 분의 타주 이주를 제외하고 회장, 이사장, 이사님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수고하시어 이젠 틀이 잡힌 시민 협회를 대하는 마음 기쁘고 축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2세를 양육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협회가 조직이 되어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시민 협회에 한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로서도 기대가 크며, 지역의 차원을 떠나 전체 미주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한인들을 위한 단체가 되며 또한 대변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신을 우리 후손과 타민족에 보여 주십시오.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지 제 3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시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5세, 2세가 주축이 되고 1세는 뒷바라지를 하는 타민족 협회들도 봅니다. 그들의 특성은 협회를 활용, 민족성 확인 내지는 나아가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도 주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이슈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협동 단결하며 정치가를 이용하는 힘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힘에는 당연히 선거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쪽이 우세합니다. 시민 협회에서는 초기부터 유권자 등록을 권장하며 계몽하고 있는데 많은 협조와 호응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시민 협회 여러분, 한인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젠 우리의 2세들이 미국 속의 주류에서 활동을 해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참여하는 관심을 보이시어 한민족의 단일 민족 정

1993년은 여러분의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가 창립된 지 만 3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0년 8월 18일에 있었던 창립 총회에서 통과된 헌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3차의 정기 총회와 2회의 협회지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첫 해인 1991년은 협회 조직에 중점을 두어 회장단의 활동과 이사회 안의 각 위원회 활동이 서로 활발히 진행되도록 맡은 바 분야를 분담하여 운영, 조정하였던 해였으며, 특히 유권자 등록 촉구 공문과 주지사 후보의 정책 분석표 및 선거 안내문 배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해인 1992년도에는, 협회 조직을 더욱 확대하여, 이사회 내에 5개 분과 위원회에서 8개 분과 위원회로 증설하였으며, 지역 이사, 여성 이사, 1.5세 이사 등이 보강된 바 있으며, 특히 미국 선거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후보를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93년의 협회 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차 총회 개최

1992년 10월 24일 (토), 북부 보스턴 한인 교회에서 "재미 한인들의 정치, 사회 의식화"란 주제로, 백 린 고문께서 역사적인 고찰을, 최승훈 후보가 정치 일선에서, 김 영집 회장이 시민 협회 활동면에서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2. 시민 협회지 제 2호 발간

김 명기 출판 위원장의 수고로 7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3. 고문, 이사, 임원 연석회의 및 임원 회의



2월 27일 김 기자 이사 사무실, 6월 4일 김 문소 이사장 댁, 9월 11일 송 남수 이사 댁 등 3회의 연석 회의를 가져 협회 운영을 논의한 바 있으며, 9월 30일과 10월 13일, 김 문소 이사장 댁에서 두번에 걸친 임원 회의와 총회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4. 이사 변동 및 보강

93년도에 진출한 이사는 노 명화 이사, 이 병철 이사이며, 추천된 이사는 김 광섭 (북부 보스톤 교회), 박 필수 (셀렘 반석 교회), 이 문열 (보스톤 장로 교회), 이 상우 (통계 자료 연구소), 박 재영 (보스톤 시온성 교회), 이 영호 (보스톤 한인 천주 교회), 김 한수, 임 병규 (성 요한 교회) 이사 등으로 여덟 분입니다.

5. 다른 단체와의 활동 참여

4월 21일, Cambridge의 Bay Bank 회의실에서 있었던 Korea New England Alliance 창립 모임에 참여했으며,

5월 15일, Boston Sheraton Hotel에서 "Asian American Making Difference"라는 주제로 제 7차 Asian American Unity Dinner에 20명이 참여했고,

6월 30일, Boston Aquarium에서 있었던 제 4차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의 "A Taste of Asia" 축제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였고,

7월 24일에는 Boston Hatch Shell에서 있었던 Asian Festival에 참가하였습니다.

6. 홍보 활동

최 홍균 홍보 위원장의 수고로 월간 Korea Magazine에 3번 시민 협회 활동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92년 12월호에 제 2차 총회 보고와, 93년 7월호에 임원회 보고 및 Asian American Unity Dinner 참석 후감 등)

7. 협회원 주소록 준비 및 통신 활동

지난 3년간 장 용복 부회장이 맡아 수고하시던 회원들의 주소 정리와 통신 연락 업무를 한인회 산하 기관으로서 새로 발족하는 뉴 잉글랜드 한인 통계 자료 연구소의 책임을 맡으신 이 상우 이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고, 이번 총회를 연락하기 위하여 주로 Massachusetts주에 거주하는 한인 1,940 가정에 제 3회 정기 총회 개최 통보와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8. 총회 준비 및 합동 강연 후원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California 제 41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김 창준 (Jay Kim) 의원을 제 3차 총회에 강사로 초빙키로 결정하고, 10월 23일 (토) 오후 7시 성 요한 교회에서 총회 및 강연회를 가졌으며, 동시에 10월 22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Harvard Korean Students Association과 Korea New England Alliance, Inc. 및 우리 시민 협회 3 단체가 공동 주최로 Harvard 대학교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김 창준 의원이 William Weld 주지사와 함께 강연회를 갖도록 후원한 바 있습니다.

9. 초대 회장 환송 모임

7월 16일 (금), 김 은한 위원장 댁에서 뉴 잉글랜드 한인 학교 협의회와 시민 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3년여 간을 시민 협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던 김 영집 장로님을 환송하는 모임을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가진 바 있습니다. 김 영집 초대 회장은 Indiana University - Purdue University of Indianapolis의 교수로 9월부터 임명되었습니다.

1993년 Clinton 대통령의 취임에 이어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 (National Health Care) 실시를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유럽 경제 공동체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에 대응하는 체계를 형성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 침체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이 때에, 시민 협회도 여러분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제 3차 총회도 성공리에 끝내고 새로운 회장단과 이사장단을 선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업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 행사 및 한인 후보자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봉사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한인 미국 시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의 시민 협회는 계속 활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힘찬 새해를 맞이 합시다.

시민 협회의 총회 모임은 우리에게 귀하고 기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정든 Boston 지역을 떠나 Indianapolis로 직장을 찾아 왔고 하는 일이 벅차서 지난 총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사과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비록 참가는 못했으나, 김 창준 의원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한 것은 멀리서 상상하기만 해도 기쁘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민 협회를 조직하고 힘을 모아 정치에 참가하는 이유가 바로 한인 중에서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오래 헌신하고 봉사한 점이 인정되어 중앙 정부의 하원 의원이 되었으니 한인 사회 전체의 기쁨이요 함께 축하할 경사입니다.

총회의 결과를 전해 들으면서 한번 더 기뻐한 것은 유능한 지도자를 새 회장으로 협회가 맞이함입니다. 김 회장께서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일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회 곳곳에 그를 따르며 도와 줄 분들이 계시고 개성이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지니셨으므로 시민 협회의 비약적인 성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님과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Boston 지역에 11년간 머물러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협회 활동한 지난 4년간은 저의 생애 중에 참으로 기쁘고 보람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협회의 성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피차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개인의 특별한 사정은 이해하되, 나를 위한 이익은 돌보지 아니 하였습니다. 바쁜 미국 생활 중에 가정과 휴가를 희생하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각종 모임을 준비하고 참가한 여러분들께, 또한 협회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기회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사회가 지난 30년간 놀랍게 많이 변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전체가 급변하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이같이 빠른 변화를 치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시야를 높은 곳에 두고 넓은 세계를 내다 봐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계속의 미국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한인 사회를 알게 됩니다. 미국에는 참으로 많은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어울려서 잘 조화를 이루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도 각 지역에서 다른 소수 민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권익을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 회장님의 지도하에 시민 협회를 새롭게 더 활발하게 키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김 영집 전회장의 신주소

Dr. Young J. Kim

6260 Avalon Lane East Drive

Indianapolis, IN 46220-5081

Tel.: (Home) (317) 475-1641

지난 10월 22일, 23일 양일 간에 걸쳐서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가 후원 및 주최하는 가운데 김 창준 연방 하원의원과 Weld 주지사를 모시고 2세 중심의 강연 및 협회의 총회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김 의원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인으로서 연방 하원의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삶과 정치적 비전과 한인들을 향한 그의 도전적 요청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소수 민족들에 비해서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지만,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가서 이 미국의 거대한 정치와 사회 풍토에서 한인 사회의 힘을 형성해야 될 시기가 바로 온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강물같은 미국 사회에서 그곳에 뛰어 들어서 한 물결의 부분을 이루지 못하면, 각 개인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것이 현실이며 당연한 귀추라 할 것입니다. 한인들도 이 점을 크게 깨달아서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와 정치 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깨달아서 창립된 모임이 시민 협회라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 보면 재미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 이제는 의사로서 교회 장로로서 지역 사회에서 미국인들과 편안한대로 사교하며 만족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유에 못이겨 마지 못해 시민 협회에 가담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그저 허송 세월을 보냈듯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사회 의식과 공동체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면에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참으로 공평하며 뭐니뭐니해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축복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이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 민족은 그것에 중요한 한가지를 더 첨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끝까지 이방인으로서 무시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인 이세들에게 수치스러운 유산만을 남겨주는 못난 1세의 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는 축복된 이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스턴은 이 미국의 핵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한국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뭉쳐서 힘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지역 사회와 시와 주 정부와, 더 나아가서 연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교회와 교역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며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와 각계 각층에서 이미 훌륭하게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의 손들이 요청됩니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생들도 같이 협찬하여 활력있는 단체로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협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같이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냉소와 무관심은 금물입니다. 자신만을 보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민으로서 한인의 전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찾아 행하며 멋진 삶을 이루어 나가고 이세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 3차 정기 총회가 약 백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3일 Lexington 소재 성 요한 교회에서 열렸다. 김 영집 회장이 Indianapolis로 이사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김 원엽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제 1부 순서는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김 창준 의원의 강연회였다. 보스턴 한인 교회 채 위 목사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었으며 이어 최 승훈 이사의 감사 소개가 있었다. 김 창준 의원은 강연을 통해 우리 교포들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정치력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들의 정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와 목사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 사회의 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둘째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해야 하며, 셋째 우리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지도자를 도와 함께 뭉쳐야 된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 강연 내용 12 페이지 참조)

이날 오후 김 창준 의원 재선 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인사에 나선 남궁 연 후원회장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겨우 경제적인 여유는 생겼지만 아직 미국 사회의 변두리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면 미국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궁 회장은 일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방 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재선, 삼선 의원의 정치력이 초선 의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94년에 있을 김 의원의 재선을 위해 교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이날 오후 모금된 돈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학생 대표 서 경원군 (Austin So)은 이세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한국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계에서 전문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것을 약속한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서군은 이날 오후 Korea New England Alliance, Asian American Commission,

시민 협회와 공동으로 Massachusetts 주지사 William Weld와 김 의원을 모시고 "Korean American Political Empowerment"라는 주제의 모임을 주최하였는데 미국 각지에서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제 2부 순서인 정기 총회는 김 원엽 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회순 채택에 이어 김 문소 이사장은 협회 보고를 통해 93년도의 행사로 회지 2호 발간, Asian American 행사 네 번 참여, 새로운 이사 후보 선출, 네번의 이사회 및 김 영집 회장 환송회 등을 열거 하였다. 한 복수 감사는 감사 결과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시민 협회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권 용태 재무는 결산 보고를 통해 1993년 9월 30일까지 총입금 \$2,055.00, 은행 이자 \$54.31, 총지출 \$3,274.84로 잔고가 \$2,470.43이라고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역은 17 페이지 참조. 단, 재정 보고서는 10/31/93 기준임) 이어 장 용복 부회장은 94년도 예산으로 수입과 지출이 각각 \$10,000이며 이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고하였다. (자세한 내역은 27 페이지 참조)

다음 순서는 새 회장단 선출이었는데 김 문소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로서 회장 김 은한, 부회장 송 남수, 김 양길, 총무 최 홍균, 재무 정 진수씨를 발표하였으며 만장 일치로 새 회장단이 선출되었다. 김 문소 이사장은 이어서 새 이사로 김 광섭, 박 필수, 이 문열, 이 상우, 김 한수, 임 병규, 박 재영, 이 영호씨를 추천하였으며 역시 만장 일치로 선출되었다.

김 은한 신임 회장은 이번 총회를 위해 1900통의 안내 편지를 보내고 약 2000통의 전화를 걸었으나 이날 참석자가 적은 데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능력을 다해 시민 협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시민 협회의 활동에 여러 교민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시민 협회의 두 가지 큰 목표를 유권자 등록과 투표 권

장으로 잡은 그는 이 목표가 결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김 회장은 4년전 Lexington의 Selectman 후보로부터 협조를 부탁받고 전화를 걸어 투표할 것을 권장했으나 70명의 한인 시민권자 가운데 7명만 투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보가 김 회장의 소개로 중국인 표를 많이 받아 Selectman에 당선된 후 교회의 Loan 등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들이 더 늦기 전에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원엽 전 부회장이 사회를 김 회장이게 넘겼으며, 김 회장은 김 창준 의원의 재선 후원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제 3차 정기 총회가 막을 내렸다.

제 11차 이사회 소식

(정리 최 홍균 총무)

제 11차 이사회가 11월 19일 최 홍균 총무실에서 17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은한 회장은 제 3차 총회 결과 보고 및 검토를 통해, 노력에 비해서는 참석 인원이 미흡하였으나 이는 통보보다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2세들에게 Role Model과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말하였다. 김 회장은, 내년도 선거를 맞아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Lexington과 Andover에서 집중적인 선거 참여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최 영훈씨와 조 봉준씨를 각각 지역 이사로, 그리고 이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 Harvard 대학의 서 경원 군을 학생 이사로 추천하였다.

이어서 김 양길 부회장은 현 현장의 여러가지 미비점을 보고하였는데, 이사회는 현장 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현장 개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김 양길 부회장을 위원장, 백 린 고문과 김 문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사장 김 문소, 부이사장 이 문열, 감사 한 복수, 권 용태, 섭외 정 용훈, 대변인 박 경수, 유권자 등록 추진 위원장 박 재영, 기금 모금 위원장 김 광섭, 정책 분석 위원장 김 한수, 출판 위원장 김 명기, 이세 지원 위원장 김 기자, 홍보 위원장 이 상우, 개발 위원장 원 덕수, 한미 문화 연구 위원장 임 병규, 고문으로는 백 린, 김 원엽, 박 경민, 송 병혁, 김 철씨를 추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이사로 권 용태, 장 용복, 정 석호, 김 기석, 김 성균, 조 봉준, 최 영훈, 허 장균, 서 경원씨를 다음 총회에 추천하기로 했는데, 현 현장에 이사의 정원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거나 활동이 없는 김 섭, 박 대위, 최 수길, 노동섭, 이 학렬, 홍 윤기, 최 승훈씨를 이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세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일제 치하에 살았는데, 학교에서 한국 말을 하면 일본 선생님이 때렸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불분명한 상태와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후 8.15를 맞아 혼란 속에서 이 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난한 민주주의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으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가 터져 피난을 못가서 공산당 밑에서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삼을 들고 땅굴을 파서 쌀을 배급받아 어머니께 죽을 끓여 드렸습니다. 일사 후퇴 때에는 수레를 끌고 걸어서 아무데서나 자면서 대전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후 다시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올라 갔습니다. 정말 쌀밥 좀 먹어 보았으면 원이 없었던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조금 살만해 졌을 때 4.19가 터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문교부 시험을 보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오면 호강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며 고학을 하느라 Grocery Store에서 밤새 고기를 자르는 등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Welfare를 한 번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서부터 이날까지 고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고생이나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생이 저를 이만큼 단단하게 만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포들은 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대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곳에 와서 흑인, 히스패닉, 필리핀 인 등 복잡한 Melting Pot 속에서 이만큼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이 위

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면 일본에서 온 관광객으로 알지 미국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누구나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Korean American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불행을 당했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불행입니다. 나만 Different Korean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 교포들의 설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조국에서도 교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만나 지금 미국에서 제일 투표 안 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인데 많은 교포들이 시민권을 안 따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재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중 국적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으니 한국에서 이중 국적 허가는 절대로 국회 통과가 안되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조국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의 의무는 하지 않고 이제 재산만 가져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어려서 자랐던 추억 때문에 항상 한국 신문, 한국 잡지를 보면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여 화가 나도 꼭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 돌아 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엉거주춤한 생활을 계속 할수록 이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세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BMW를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Los Angeles에서 얼마 전 4.29가 터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

니다. 정치가들에게 그렇게 돈을 갖다 주었는데 일단 4.29가 터지니까 등을 돌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흑인들이 못사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데 정치가들은 이것이 한국 사람의 책임인 양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수십만 불의 돈을 장학금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우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미국 정치인의 잘못이며 어느 큰 도시에나 다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력이 조금도 없는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주려고 몽친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눈이 먼 할머니가 손자의 도움을 받아 손으로 싸인을 해서까지, 또한 아들을 위해 모은 돈까지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돈을 보냈고 막대한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미국 법원으로 가서 싸우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처음 와서 악착같이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돈만 안다고 비난하자 그들은 Jewish Foundation을 만들고 많은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래도 돈만 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절실히 느낀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고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열심히 교육시켜 변호사를 많이 만들었고 현재 유명한 변호사는 거의가 유대인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주는 25억 불의 원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마디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해서 악착같이 일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기반을 닦았지만 정치력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이민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주로

중국인, 한국인을 제한하고 유대인, 유럽인, 캐나다인을 더 받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이민 와서 Melting Pot이라는 미국 사회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삽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등 또 하나의 조그만 사회를 만들고 삽니다. 그러면 미국 사회 속에 또 하나의 사회가 생기는데, 이것을 키우는 것이 미국 이민 정책의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 반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최근 400억 불의 정부 Contract중 30%를 Minority에게 주자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1/3은 흑인, 1/3은 히스패닉, 1/3은 여자에게 주기로 되었고 동양인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동양인이 Minority가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가 Clinton 정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동양인이 빠졌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어느 Survey를 보아도 동양인이 교육 수준이 높고 재산도 백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기 때문에 도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백인들과 같은지, 아니면 우리가 비싼 집에 비싼 차를 타고 너무나 과시를 해서 백인들에게 동양인은 부자라는 인식을 깊이 주었기 때문에 보상받을 필요가 없어 빼앗긴 것인지요?

국회에는 Caucus가 많습니다. 흑인 Caucus 40명, 히스패닉 25명, 여자는 30명입니다. 동양 사람은 공화당에는 저 혼자 밖에 없고 민주당에 2명으로 Caucus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또 흑인들은 흑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면 되지만 저는 동양인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백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양인의 권익만을 앞장 서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10년마다 Minority들의 당선이 유리하도록 선거 구역을 재조정 합니다. 그래서 흑인은 흑인 구역에서 출마하고 히스패닉은 히스패닉 구역에서

출마하면 되지만 동양 구역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세들이 국회에 출마할 때는 백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인처럼 행동해야 하고 주위 사회를 알고 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인 교회와 목사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Ethnic Group을 보더라도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앞장을 섰습니다. 이 나라에 Civil Right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흑인 목사 Martin Luther King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백인들을 도와 줄 때가 되었습니다. Mississippi에서 홍수가 났을 때 한인 교회에서 500불을 그 지역 신문사에 이재민을 돕는 데 쓰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기사로 나왔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줄 아십니까? 이런 Pride를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둘째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부재자 투표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쉬워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투표를 안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유태인 대표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원이 천 명인데 만나자고 한다면 당장 뛰어 옵니다. 그러나 한인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회원이 만 명이라도 백 명 투표하면 잘하기 때문에 돈이나 건어 주면 몰라도 안오겠다고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안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어도 아무 자료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 명이라면 적어도 오천 명은 투표하여 정치가들이 한국 사람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과거 오년 동안의 투표 기록이 금방 나옵니다. 한국 사람은 투표를 안한다는 오명을 이세들에게 남겨야 하겠습니까?

세번째로는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도자로 뽑힌 사람을 도와 줍시다. 어느 큰 도시마다 한국 사람끼리 미국 법원에 가서 싸우고 있지 않은 데가 없는데 제발 법원에 가서 싸우는 것을 그만 둡시다. 이것이 이세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모두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저를 성원해 주시는 뉴 잉글랜드 교민들과 초청하여 주신 시민 협회 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Video 기록 최 영훈



Congressman Jay Kim (R, 41st District-CA) was elected to his last November. He is the first Korean-American ever elected to the U.S. Congress. As a Freshman member of the 103rd Congress, he serves on the Committee on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 and th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He also serves on the Ad Hoc North Korea Intelligence Committee and is an honorary member of the Asian-Pacific Affairs Subcommittee. Prior to his election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man Kim was elected City Councilman and then Mayor of Diamond Bar, California. Congressman Kim received his B.A. and M.A. in Civil Engineering from USC, and his L.A. and M.A.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CSU. He resides in Diamond Bar with his wife, June, and children, Richard, Kathy and Eugene.

Speech of Mr. Seung Hoon Choi
at First Annual Korean American Conference, Harvard University, Oct. 23, 1993
"Political Empowerment in the Asian-American Community"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guests and students. I am truly honored to be speaking to you today at the First Annual Korean American Conference at Harvard University.

I standing before you today to speak about political empowerment amongst the Asian Americans, and how effective political mobilization can impact the community. I loosely define empowerment as a means in which to draw strength and understanding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shared goals. Political empowerment is simply a method in which one set of shared goals may be actualiz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mpowerment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s critical. As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e have a civic responsibility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decisions that concern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Korean Americans need to move from the periphery and become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cess at all levels.

My own process of political empowerment began most definitively with my candidacy for State Representative in the Massachusetts State Legislature. Although I was defeated, my candidacy succeeded in creating greater awareness in the community. It raised consciousness of the lack of Asian American representation in the State government and sent a decisive message of strength and conviction to the public. Although my defeat was a special disappointment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we are still making progress, as evidenced by the presence of our first Korean-American U.S. Congressman. We are very proud of him.

Political empowerment begins with active participation at all levels. We need effective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so that our voice may be heard, so that our interests are met, so that Korean-Americans as a group are not marginalized. We need people to run for the policy-making offices that have the power to impact the community. We need to support one another on every level. I urge you to help, to support, and to become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cess in any way, even if that simply means registering to vote.

The younger generation of Korean-Americans will eventually be our community leaders. They will be the ones to represent us. I believe that we have an obligation to encourage and to train and to support our future leaders. Let me propose some thoughts on a potential political networking system.

First, a Grassroots Network:

Have Congressional District Coordinators within each State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political coalitions among ethnic groups. A state chairperson will oversee district activities such as fundraising.

Second, a Functional Network:

Committees for professionals such as attorneys, engineers, doctors, professors, etc. will provide support for the Grassroots network and handle outreach.

Steering committees made up of representatives from both groups will conduct policy decisions. This political network will be a forum within which views may be

represented, campaigns will be supported, and coalitions will form. There will be committees in each state and a national committee to oversee coordination.

I would like to reflect briefly about my experiences during my candidacy for State Representative. Through all the exhilaration and frustrations of the campaign, through all I learned from the dedication and commitment from my supporters, the most poignant night was election night. They began counting votes in my hometown of Northborough. I had a comfortable lead and finally won my hometown vote. I was happy for a while. Then I immediately became concerned about my showing in my opponent's hometown, which is three times the size of Northborough. I was nervous and anxious. I left the people watching television and went upstairs to hide my nervousness. My son, who was 13 years old at the time followed me up and firmly held my hand. We sat in silence for a few moments and then he whispered, "Dad, let's pray." I was choked with tears. I will never forget that moment with my son, when I realized that no matter what happened in the race, this small person next to me would always believe in me.

I would like to close with a letter I received from one of my campaign supporters.

Monday, 21 Sep. '92
Dear Seung,

The election is over, you've gone through the stage of feeling down, feeling depressed. But you're still you, you're still around to fight

again. And you must! You didn't run for election to win a job, you had a mission. You wanted to be the first Asian-American elected to the Massachusetts house.

That little seven year old boy living in the mountains of Korea has come a long way. But God's not through with you yet. You still hold a dream, a vision. Somehow, someday, you'll make it!

Allow me to show you the path of success, of another great American. Had he known defeat? Yes. Did he let defeat stop him? No. If he had we would not have known him.

1831 - Failed in business
1832 - Defeated for Legislature
1833 - Second failed business
1836 - Suffered nervous breakdown
1838 - Defeated for speaker
1840 - Defeated for elector
1843 - Defeated for Congress
1848 - Defeated for Congress
1855 - Defeated for Senate
1856 - Defeated for Vice President
1858 - Defeated for Senate
1860 - Elected President of U.S.

Abraham Lincoln never accepted defeat, never stopped believing in himself or his mission. He just kept trying. His cause was right, he knew it, he just kept going on until others knew it.

You've tasted defeat, so have other successful people. We can choose to accept defeat and stop believing in ourselves or we can learn from defeat and come back stronger.

You have faced many obstacles in your life which seemed impossible to overcome, yet you found a way to win.

Remember, you entered this race too late, with no name recognition. Yet you made a good showing. Remember, also, the people that believed and supported you. We want you to get up and continue your fight.

We found a very special person. Someone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in our lives and the lives of our children. God has given you intelligence, desire, and strength. You must use these God-given talents for the good of your fellow man, this is the price asked of you.

(Signed) John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재정 보고서

회계 년도 말 : 10/31/93

재무 권 용 태

이월금 9/30/92	\$ 3,633.96	항목별 지출 내역	
총입금	\$ 3,405.00	회보 발행비	\$ 1,500.00
총지출	(\$ 5,931.03)	우편물, 우편비	\$ 1,068.84
은행 이자	\$ 57.36	총회 준비비	\$ 1,463.19
잔액 10/31/93	\$ 1,165.29	문화 행사 참가비	\$ 1,301.25
		광고비	\$ 435.00
		경조비	\$ 162.75
		합계	\$ 5,931.03

년도별 입금 내역

회계 년도	8/31/91	9/30/92	10/31/93
회비	\$ 1,660.00	\$ 420.00	\$ 740.00
이사회비	\$ 1,600.00	\$ 500.00	\$ 1,300.00
찬조 및 기타	\$ 640.00	\$ 720.00	\$ 615.00
광고, 후원		\$ 2,400.00	\$ 750.00
합계	\$ 3,900.00	\$ 4,040.00	\$ 3,405.00

Speech of Ms. Kija Kim, President, Harvard Design & Mapping company, Inc.
at First Annual Korean American Conference, Harvard University, Oct. 23, 1993

I am delighted to be here today and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organizing the first Korean-American Conference. I see this as the beginning of a camaraderie for us, and also an awareness for Korean-Americans. I see this time as a coming of age. I like the description of the Conference's Agenda "political empowerment."

Today, as Korean-Americans, we need to take part in a movement into the Main Stream of American Life. Our immigrant history is short. Many of you are part of the first or seco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s. We have achieved a lot but there is much more left to do.

Korean-Americans are intelligent and hard-working, and yet we tend to stay behind the scenes. I feel it is time that we should be more assertive in participating in Main Stream America. Do not isolate yourselves into separate groups, as Koreans, Asians, or as minorities. We should not be outsiders, but insiders.

Be assertive and confident. In order to succeed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you must integrate yourself into the Main Stream and co-exist amongst your fellow Americans. Yes, we are a minority, but only in numbers. We are smart, hardworking and ethical, and we are proud of these characteristics.

Look at other groups. The Irish in Boston have achieved political power (early 1900's) with an enthusiastic sense of community. African Americans have had a very strong voice in their fight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the 1960's and throughout their history in this country. Jewish people have

achieved economic power in conjunction with political power.

Today I would to talk about "Getting to Success". I like that theme, and so I have chosen my topic today to be "How To Succeed in Business and Political Empowerment". Am I successful? I think I am. Then how do I measure my success?

I have spoken on many occasions before, but this meeting today has special meaning to me, because it is about Korean Americans, especially younger generations of Korean-Americans. I am happy to share my experience with you.

I am the President of Harvard Design and Mapping Company (HDM) in Cambridge, Massachusetts. HDM is a high tech, computer mapping company. We provid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to government and private firms both here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HDM is different from most other businesses. We are very active and visible in public life. We have become a model for other 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es, and for businesses that want to go global.

I feel particularly rewarded when I can make contributions to society. The projects that my company works on help the environment, and I am also involved in many Asian, cultural, and business organizations. Therefore, my best advice to you is:

Be active and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and in organizations that meet your interests. Exercise your rights as American citizens. Register, vote and make educated choices, because these are the first steps

towards political empowerment.

You have to become part of the system to be able to influence it. Even though there are no available statistics, there are reports that less than ten percent of Korean Americans are registered to vote and even less than ten percent of them vote. That means less than one percent actually vote. With this trend, how can we have a strong voice in politics?

Asian-Americans are the fastest growing minority group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very industrious and highly educated people, but we are not generally active in political and public affairs. For this reason, Massachusetts Governor William Weld established a fifteen member commission to advise him on Asian-American affairs, and charged the Commissioners to represent their communities.

I am proud to serve on the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and to represent the thousands of Korean-Americans here in Massachusetts. This commission is among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I am also involved in Korean political awareness organizations. I am an executive board member of the Korean Citizens League, and I have been a spokeswoman for Asian, minority, and women's businesses.

Last spring, I was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 meet with President Clinton and Vice President Gore to address Minority Busines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s economic agenda and economic stimulus plan. I am very pleased to represent these communities and to help them in realizing their American Dreams.

In closing,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thoughts on success and political empowerment:

How do you measure your success? Success is subjective, just like measuring happiness, but in order to achieve it you must work hard for your goals.

My recommendation is:

Look at your strengths and talents. Be confident in yourself. Remember that people look at you the same way you look at yourself.

Be active in your cause and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This participation begins with registering to vote. For us as Americans, this is both a right and a responsibility.

You are a fortunate few; you have so much to offer; serve your cause and you will be successful.

I wish you all the best of luck, and I hope that each of you are each able to reach your goals and fulfill your dreams.

Thank you very much.

공인회계사

권용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el: 617-965-3020

343 Washington St.
Newton Corner, Massachusetts 02158

회장	김 은한	<u>President</u> Kim, Eun Han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173 H : (617) 861-0437 O : (617) 665-8912
부회장	송 남수	<u>Vice President</u> Song, Nam Soo	22 Draper Road, Dover, MA 02030 H : (508) 785-2641 O : (617) 762-6592
부회장	김 양길	<u>Vice President</u> Kim, Yangkil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0 H : (508) 691-5108 O : (508) 475-9214
총무	최 홍균	<u>Secretary</u> Choi, Hong Kyun	11 Barkus Farm Rd., Concord, MA 01742 H : (508) 369-0351 O : (617) 981-4457
재무	정 진수	<u>Treasurer</u> Chung, Jinsu	11 Suffolk Rd., Wellesley, MA 02181 H : (617) 235-0529 O : (617) 421-0856
섭외	정 용훈	<u>Public relations Officer</u> Jung, Yoang Hoon	80 Central St., Andover, MA 01810 H : (508) 475-3124 O : (617) 727-4585 e. 425
대변인	박 경수	<u>Spokesperson</u> Park, David KyungSu	15 Lyme Road, Newton, MA 02165 H : (617) 964-1140 O : (617) 973-3536

이사장	김 문소	<u>Chairperson</u> Kim, Moon So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 : (508) 475-3534 O : (508) 851-3626
부이사장	이 문열	<u>Vice Chairperson</u> Lee, Moon Yoel	1634 Blue Hill Ave., Mattapan, MA 02126 H : (617) 847-6846 O : (617) 298-1185
감사	한 복수	<u>Auditor</u> Han, Boksoo	18 Jennifer Road, Wakefield, MA 01880 H : (617) 245-6246 O : (617) 266-7117
감사	권 용태	<u>Auditor</u> Kwon, Yong Tae	6 Greenwood St., Lexington, MA 02173 H : (617) 861-8839 O : (617) 965-3020
이사 (차기 한인회장)	장 승훈	<u>Executice Officer</u> Chang, Paul	8 East St., Winchester, MA 01890 H : (617) 729-8891 O : (617) 248-8784

유권자 등록 추진 위원회 REGISTRATION & CAMPAIGN COMMITTEE

위원장	박 재영	<u>Chairperson, Committee</u> Park, Jae Young	17 Shedd Lane, Chelmsford, MA 01824 H : (508) 458-0572 O : (508) 486-6805
위원	최 낙철	<u>Member, Committee</u> Choi, Nackchul	8 Reid Rd., Chelmsford, MA 01824 H : (508) 256-6065 O : (617) 935-8585
위원	박 필수	<u>Member, Committee</u> Park, Phil S.	22 Maplewood Ave., Tyngsboro, MA 01879 H : (508) 649-6595 O : (508) 649-4177
위원	조 봉준	<u>Member, Committee</u> Cho, Bong June	10 Endicott Rd., Andover, MA 01810 H : (508) 475-2317 O : (508) 535-6936
위원	최 영훈	<u>Member, Committee</u> Choi, Yung Hoon	37 Woodpark Circle, Lexington, MA 02173 H : (617) 861-6068 O : (508) 467-2815
위원	이 영호	<u>Member, Committee</u> Lee, Young Ho	62 Yorkshire Rd., Dover, MA 02030 H : (508) 785-0925 O : (617) 547-7898

기금 모금 위원회 FUND RAISING COMMITTEE

- 위원장 정 수일 Member, Committee 15 Locker St., Wayland, MA 01778
Chung, Sooil H : (508) 655-2067 O : (508) 875-9111
- 위원 김 영하 Member, Committee 1011 Centre Street, Newton, MA 02159
Kim, Young Ha H : (617) 527-3456 O : (617) 442-1616
- 위원 김 광섭 Chairperson, Committee 1 Haskell Rd., Andover, MA 01810
Kim, Kwang Sup H : (508) 474-0918 O : (617) 577-3746

정책 분석 위원회 CANDIDATE EVALUATION COMMITTEE

- 위원장 김 한수 Chairperson, Committee 26 Reeves Rd., Bedford, MA 01730
Kim, Hansoo H : (617) 275-2409 O : (617) 499-1403
- 위원 김 성군 Member, Committee One Boston Place, 30th Fl., Boston, MA 02108
Kim, Song-Kun H : (617) 825-1115 O : (617) 227-1792
- 위원 김 기석 Member, Committee 1 Terrace Rd., Weston, MA 02193
Kim, Kisuk H : (617) 899-3453 868-5988 (C)

출판 위원회 PUBLICATION COMMITTEE

- 위원장 김 명기 Chairperson, Committee 2 Lamprey Lane, Lee, NH 03824
Kim, Michael Myungki H : (603) 659-6129 O : (603) 772-7773
- 위원 정 석호 Member, Committee 321 Main St., Milford, MA 01707
Chung, Paul S. H : (508) 634-8188 O : (508) 634-8882

이세 지원 위원회 SECOND GENERATION SUPPORT COMMITTEE

- 위원장 김 기자 Chairperson, Committee 80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2503
Kim, Kija H : (508) 369-6731 O : (617) 354-0100
- 위원 허 장균 Member, Committee 394 Lowell St. Suite 3, Lexington, MA 02173
Hur, Charles H : (617) 270-4806 O : (617) 861-8978

홍보 위원회 COMMUNICATION COMMITTEE

- 위원장 이 상우 Chairperson, Committee 19 Sherwood Ave., Danvers, MA 01923
Lee, SangWoo H : (508) 774-8523 O : (617) 422-7297
- 위원 장 용복 Member, Committee 4 Springdale Road, Lexington, MA 02173
Chang, Yong Bock H : (617) 862-7863 O : (617) 973-7145

개발 위원회 DEVELOPMENT COMMITTEE

- 위원장 원 덕수 Chairperson, Committee 240 Health St. PH-16, Jamaica Plain, MA 02130
Wohn, Douglas Duksoo H : (617) 731-1102 O : (617) 635-5312

한미 문화 연구회 KOREAN-AMERICAN HERITAGE RESEARCH COMMITTEE

위원장 임 병규 Chairperson, Committee 24 Thomas Dr., Reading, MA 01867
 Lim, Byoung Kyu H : (617) 942-0624 O : (617) 654-3183

- 고문 백 린 Advisor 6 Edwin Street, Brookline, MA 02146
 Paik, Lin H : (617) 734-9178
- 고문 김 원엽 Advisor 26 Lisa Lane, Lawrence, MA 01843
 Kim, Wonyop H : (508) 794-3462
- 고문 박 경민 Advisor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193
 Park, Kyung Min H : (617) 899-5009 O : (508) 879-7111
- 고문 송 병혁 Advisor 8 Pleasant St., Salem, NH 03079
 Song, Byoung-Hyuk H : (603) 437-8757 O : (603) 898-4176
- 고문 김 철 Advisor 8 fresh Pond Lane, Cambridge, MA 02138
 Kim, Joseph Chul H : (617) 661-0716 O : (617) 246-4333
- 고문 정 세용 Advisor 7 Edgewater Dr., Mattapan, MA 02126
 (한인회장) Chong, Andrew S. H : (617) 696-0850 O : (617) 298-0707

취임 년도별 이사 구분

97년도 이사		96년도 이사	95년도 이사	당연직 이사 (회장단)
김 광섭	장 용복	최 낙철	김 문소	김 은한
박 필수	정 석호	정 수일	한 복수	송 남수
이 문열	김 기석	김 기자	정 용훈	김 양길
이 상우	김 성균		박 경수	최 홍균
김 한수	조 봉준		김 명기	정 진수
임 병규	최 영훈		김 영하	한인회 대표
박 재영	허 장균		원 덕수	
이 영호	서 경원			
권 용태				

한글이름	영문이름	연락주소	지역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강경희	Kyong Hi Kang	4 Baron Park Lane #18	Burlington, MA	01803	617-221-0363
강길원	신동욱 Kil Won Kang, M.D.	8 Heritage Street	Andover, MA	01810	508-470-1387
강성유	박연교 Sung Yu Kang	P.O. Box 499	Nutting Lake, MA	01865	508-663-9438
계경미	버크레니 Kyung Mi Burke	242 Pine St. Extention	Attleboro, MA	02703	508-222-7056
공병선	원동선 Byung Seon Kong	17 Corinne Road	Brighton, MA	02135	617-782-2415
곽영덕	김영숙 Young Duk Kwak	200 Swanton St. T-33	Winchester, MA	01890	617-729-6184
국연희	Yonni Buchanan	32 Holton Street	Danvers, MA	01923	508-750-6813
권상혁	유현자 Sang Hyuk Kwon, M.D.	4 Farmland Circle	Andover, MA	01810	508-475-9458
권선호	Sun Ho Kwon	35 Sandra Lane	North Andover, MA	01845	508-685-5887
권용태	장인경 Yong Tae Kwon	6 Greenwood Street	Lexington, MA	02173	617-861-8839
권이득	이영희 Yiduk Kwon	1 Baskin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1-8477
권정자	Jung Ja Kwon, M.D.	8 Essex Street	Lexington, MA	02173	617-861-1066
권진태	박인숙 Jin Tae Kwon, Rev.	8 Jonathan Road	Bedford, MA	01730	617-275-7880
김갑성	이상구 Kap Seong Kim	112 Murdock Street #1	Brighton, MA	02135	617-254-0815
김경자	Kyung Ja Husky	86N Policy Street	Salem, NH	03079	603-893-1343
김광능	변정자 Kwang Nung Kim	58 Indian Meadow Drive	Northboro, MA	01532	508-393-7520
김광섭	김종례 Kwang Sup Kim, Ph.D.	1 Haskell Road	Andover, MA	01810	508-474-0918
김광희	손세윤 Kwang Ho Kim	20 Lakin Street	Pepperell, MA	01463	508-271-2501
김기석	김현숙 Ki Suk Kim	1 Terrace Road	Weston, MA	02193	617-899-3453
김기일	김계숙 Ki Ill Kim, M.D.	5 Worthen Place	Andover, MA	01810	508-475-0731
김기차	Kija Kim	23 Wright Farm	Concord, MA	01742	508-369-6731
김남수	Nam Soo Kim	7 Trinity Court	Wellesley, MA	02181	617-235-4035
김내도	한영희 Nae Do Kim	11 Julia Road	Needham, MA	02192	617-444-1501
김도영	김옥경 Doh Yung Kim	21 Southville Road	Southboro, MA	01772	508-624-4845
김명기	김선미 Michael Kim	2 Lampery Lane	Durham, NH	03824	603-659-6129
김무광	민혜식 Moo Kwang Kim, M.D.	7 Burton Farm Drive	Andover, MA	01810	508-474-4455
김문규	최은영 Moon Kyu Kim	270 Ledgewood Road	Manchester, NH	03104	603-644-5981
김문소	김계숙 Moon So Kim, Dr.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508-475-3534
김문현	김현자 Moon Hyun Kim	4 Walker Road	N. Andover, MA	01840	508-683-1611
김병철	한영자 Byung Chul Kim	205 E. Emerson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2-2837
김복경	윤선희 Bok Kyung Kim	124 Walnut Hill Rd	Derry, NH	03038	603-432-6992
김복윤	김선현 Bok Yun Kim	175 Haverhill Street	Methuen, MA	01844	508-689-0251
김삼영	담정희 Sam Young Kim	2 Bantry Road	Southboro, MA	01772	508-460-9444
김상모	김임순 Sang Mo Kim, M.D.	13 Red Wood Drive	N. Providence, RI	02911	401-353-9118
김새진	김성미 Sae Chin Kim	124 Addison Street #9	Chelsea, MA	02150	617-884-4635
김섭	한윤경 Sop Kim	5 Woodmeadow Drive	Salem, NH	03079	603-893-5269
김성균	박미나 Song Kun Kim	25 S. Point Drive #605	Dorchester, MA	02125	617-825-1115
김성빈	박춘지 Sung Bin Kim	3 Center Street PO Box 205	Dover, MA	02030	508-785-1752
김성인	김복자 Sung In Kim	405 Concord Road	Weston, MA	02193	617-647-4143
김수진	케빈 Soo Jin Stickney	31 Edgewood Drive	Hampton, NH	03842	603-929-0845
김승일	윤신원 Sung Il Kim	475 Mass. Avenue	North Andover, MA	01845	508-689-2500
김양길	김진희 Yang Kil Kim	182 Olympic Lane	North Andover, MA	01845	508-691-5108
김영곤	이정순 Yong Kon Kim	52 Blanchard Street	Lawrence, MA	01843	508-975-0086
김영숙	Young Sook Kim	1775 Mass. Avenue #4	Cambridge, MA	02140	617-661-6424
김영애	Young Ae Kim	460 Boston Post Rd. B-51	Marlborough, MA	01752	508-460-0461
김영태	김은실 Young Tae Kim	100 Hoift Road	Belmont, MA	02178	617-489-0177
김영하	공정환 Young Ha Kim	1011 Center Street	Newton, MA	02159	617-527-3456

한글이름	영문이름	연락주소	지역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김영희	Young Hee Kim	9 Memorial Court	Andover, MA	01810	508-454-9904
김옥성	김희숙	OK Sung Kim	43 Chilton Street	Belmont, MA	02178 617-489-3209
김완해	김명숙	Wan Hae Kim	11 Edgehill Road	Woburn, MA	01801 617-933-8157
김우형	김종희	Woo Hyung Kim	1 Robinwood Way	Andover, MA	01810 508-470-2756
김원엽	김영희	Won Yop Kim	26 Lisa Lane	Lawrence, MA	01843 508-794-3462
김윤	김마리아	Yun Kim	80 Sycamore Road	Braintree, MA	02184 617-843-6091
김은기	Un Ki Reynolds	175 Old Orchard Road	Saco, ME	04072	207-929-4220
김은자	EunJa Kim Choi	9 David Drive	Andover, MA	01810	508-474-0281
김은한	이혜원	Eun Han Kim, M.D.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173 617-861-0437
김인수	이춘순	In Soo Kim	44 Swallow Drive	Newton, MA	02162 617-965-3095
김재룡	김미영	Jae Ryong Kim	12 AppleTree Lane	Lexington, MA	02173 617-862-5487
김재울	장복기	Jae Yool Kim	62 Main Avenue	Needham, MA	02192 617-449-7347
김정선	조순래	Jung Sun Kim, Dr.	79 Cottonwood Drive	Stoughton, MA	02072 617-344-4383
김정오	김경희	Jung Oh Kim	24 Dutton Street	Malden, MA	02148 617-321-1018
김정완	김경희	Jung Woan Kim	10 Kim Drive	Westport, MA	02790 508-673-0903
김창덕	이소봉	Chang-Duk Kim	4 Concetta Circle	Acton, MA	01720 508-897-4845
김창신	백은숙	Thomas C. Kim	12 Macquarrie Lane	Westford, MA	01886 508-692-7899
김철수	조경희	Joseph Kim, M.D.	8 Freshpond Lane	Cambridge, MA	02138 617-661-0761
김한태	주옥순	Han Soo Kim	26 Reeves Road	Bedford, MA	01730 617-275-2409
김헬렌	주옥순	Han Tae Kim	2 Solomon Pierce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2-8206
김현	송미자	Helen Kim	Shafer Wellesley College	Wellesley, MA	02181 617-239-3221
김현구	전인재	Henry Hyun Kim	127 DeCota Drive	Stoughton, MA	02072 617-341-0152
김형범	이계순	Christopher Hyu Kim	1216 VFW Parkway #47	West Roxbury, MA	02132 617-323-2213
김혜숙	이계순	Hyung Beom Kim	22 Thaxter Road	Newton, MA	02160 617-964-3943
김호권	이계순	Hae Sook Kim	70 Riverdale Street	Methuen, MA	01844 508-688-6865
김화자	이계순	Ho Gwon Kim	26 Myrtle Street	Wrentham, MA	02093 508-384-6495
김희준	이영경	Kim WhaJa Choi	8 Reid Road	Chelmsford, MA	01824 508-256-6065
남궁연	조정자	Hie-Joon Kim, Ph.D.	33 Pleasant Street	Wayland, MA	01778 508-651-1681
노동섭	임봉희	Yen Namkung	101 Lovejoy Road	Andover, MA	01810 508-474-4780
노명화	이현숙	DongSup Ro	35 Comstock Drive	Milford, NH	03055 603-673-6814
노영석	이현숙	Florence Lowe	325 Weston Avenue	Lynn, MA	01904 617-592-5575
문영도	김복순	Young Suk Lowe	325 Western Avenue	Lynn, MA	01904 617-595-4065
문태영	김유남	Yong Do Mun	255 Kappius Path	Newton, MA	02159 617-965-2285
민재홍	신미봉	Tae Young Mun	2 Catherine Street	Nashua, NH	03060 603-889-9289
박경민	장정울	Je Hong Min	197 at the Navy Yard	Charlestown, MA	02129 617-241-8683
박경수	권은경	Kyung Min Park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193 617-899-5009
박귀남	로버트	Kyung Soo Park, Atty.	15 Lyne Road	Newton, MA	02165 617-964-1140
박기식	정성구	Kwi Nam Deakin	21 Nuttingham Road	Westboro, MA	01581 508-898-2514
박기춘	정성구	Andrew Park	137 Lovejoy Road	Andover, MA	01810 508-475-3922
박대위	이진욱	Kee Choon Park	1738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146 617-277-0730
박명효	윤복수	David Park	107 Scotland Street	Hingham, MA	02043 617-740-1286
박병길	박영애	Myung Hyo Park	168 Coe Road	East Brockton, MA	02402 508-584-8504
박병덕	나시욱	Byung Kil Park	161 Wessaquissett Rd	North Weymouth, MA	02191 617-335-0254
박석만	최정선	Byung Duk Park	1 O'Neal Place	Brighton, MA	02135 617-787-4220
박영복	박광숙	Suk Man Park	156 Beacon Street	Andover, MA	01844 508-475-8627
박재영	백경희	Yung Pok Park	3 Appletree Lane	Andover, MA	01810 508-475-7527
박재영	백경희	Jae Young Park	17 Shedd Lane	Chelmsford, MA	01824 508-458-0572

한글이름	영문이름	연락주소	지역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박준성	이정수	Joon Sung Park	415 Oak Street	Methuen, MA	01844 508-682-4966
박필수	김영숙	Philip S. Pak	22 Maplewood Avenue	Tyngsboro, MA	01879 508-649-6595
백린	최선경	Lin Paik	6 Edwin Street	Brookline, MA	02146 617-734-9178
백이태	심성옥	Yi Tae Baik	2 Jasper Court	Methuen, MA	01844 508-681-0577
변화경	백경원	Wha Kyung Byun	13 Woodcliff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3-1580
서동황	백경원	Tong Whang So	102 LincolnShire Dr.	Haverhill, MA	01830 508-373-3709
서운경		Yoon Kyung Snyder	3 Columbia Avenue	Newton, MA	02164 617-969-6822
서해봉		Hae Bong Suh	10 Rogers Street #421	Cambridge, MA	02142 617-494-8041
성낙호	성종숙	Nak Ho Sung	5 Pitcairn Place	Lexington, MA	02173 617-861-1532
성덕춘		Deuk Choon Sung Kang	19 Westwood Glen	Westwood, MA	02090 617-329-2050
손영숙		Yung Sook Son	610 Edgebrook Drive	Boylston, MA	01505 508-869-2558
송기백	신정애	Gi Baeck Song	17 Kennedy Circle	South Easton, MA	02375 508-238-1112
송남수	조수현	Nam Soo Song, M.D.	22 Draper Road	Dover, MA	02030 508-785-2641
송태민	최현미	Tae Minn Song	337 Commonwealth Ave #10	Boston, MA	02115 617-252-6868
신고희	이옥희	Ko Hee Shin	32 Timber Lane	Methuen, MA	01844 508-685-4177
신좌경		Jwa Kyung Shin Lee	30 Wallingford Street	Brighton, MA	02135 617-254-8611
안금환	염명해	Geung Hwan Ahn, M.D.	5 Forest Drive	Andover, MA	01810 508-470-2567
안길남	김동희	Gil Lam Ahn	8 Welch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2-7740
안병학	김경순	Byung Hak An	50 North Street	Andover, MA	01810 508-689-9546
안창수		Chang Soo Ahn, M.D.	43 Arapahoe Road	West Newton, MA	02165 617-332-9782
오상철	오영애	Sang Chul O	32 Kirkland Drive	Stow, MA	01775 508-897-9864
오수택	오말선	Steve T. Oh	3 Stone Post Road	Salem, NH	03079 603-898-6576
오애미		Amy Oh	16 Winter Street	Waltham, MA	02154 617-894-7857
오원환	박수자	Won Hwan Oh, M.D.	69 Nobscot Road	Weston, MA -	02193 617-893-0760
오준희		Jun Hee Oh	2 Sherry Lee Lane	Peabody, MA	01960 508-531-8413
오태근		Tae Kwon Oh	209 Essex Street	Beverly, MA	01915 508-927-8675
원덕수	최인주	Douglas D. Wohn, AIA	240 Heath St. PH #16	Jamaica Plain, MA	02130 617-731-1102
원호혁	오정옥	Ho Hyuk Won	402 Rindge Avenue #9-G	Cambridge, MA	02140 617-661-4741
윤용훈	윤훈선	Yong Hoon Yun	3 Lady Slipper Lane	Acton, MA	01720 508-635-9375
윤원영	유영자	Won Young Yoon	167 Farrwood Drive	Haverhill, MA	01830 508-374-7417
윤천섭		Chun Sup Yoon	8 Souta Ringe Avenue	Lexington, MA	02173 617-862-3764
윤현권	윤순단	Hyon Kwon Yun	309 Tulip Lane	Lowell, MA	01851 508-459-2441
이강원	이홍지	Kang Won Lee, Ph.D.	160 Whitehorn Drive	Kingston, RI	02881 401-789-5127
이강필	송재옥	Kang Pil Lee	100 Puritan Lane	Sudbury, MA	01776 508-443-7647
이명성	권시내	Myung Sung Lee	25 Queensway #3	Framingham, MA	01701 508-877-3303
이문봉	조영희	Moon Bong Lee	8 Windgate Lane	Acton, MA	01720 508-263-0850
이문열	이숙기	Moon Yoel Lee	230 Willard Street #301	Quincy, MA	02169 617-847-6846
이문희		Moon Hee Lee	78 Main Street	Andover, MA	01810 999-999-9999
이미라		Angela Mira Lee	74 Wellesley Avenue	Wellesley, MA	02181 617-859-3946
이민용	김영자	Min Yong Lee	12 Summer Road	Cambridge, MA	02138 617-491-6227
이병철	이경옥	William B. Rhee	9 Tidd Circle	Lexington, MA	02173 617-861-8803
이상우	김희정	Sangwoo Lee	19 Sherwood Avenue	Danvers, MA	01923 508-774-8523
이승은		Susan SungEun Lee	44 Locust Lane	Needham, MA	02192 617-239-3406
이알렉산	능력재	Alexander Lee	4 Cayuga Road	Tewksbury, MA	01876 508-453-4980
이영민	이유범	Young Min Lee	391 Providence Rd.	South Grafton, MA	01560 508-839-0484
이영호	고순영	Young Ho Lee	62 Yorkshire Rd.	Dover, MA	02030 508-785-0925
이의인	백정희	Eui In Lee	7 Goffe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2-5270

한글이름	영문이름	연락주소	지역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일영	강경희	Il Yung Lee, M.D.	59 Pleasant Valley Rd.	Westwood, MA	02090 617-461-1299
이재신	김홍혜	Jay Shin Lee	1258 Beacon Street #1	Brookline, MA	02146 617-731-8338
이재환	장현숙	Jae Hwan Lee	44 Locust Lane	Needham, MA	02192 617-239-3406
이종순	정명분	Jong Soon Lee	94 Russell Street	Peabody, MA	01960 508-535-5874
이태진		Tae Jin Lee	35 Wadsworth Road	Ashland, MA	01721 508-881-2721
이학렬	조정복	Hak Ryul Lee	15 School Street	Beverly, MA	01915 508-927-0172
이화영		Hwa Young Lee	109 Adams Avenue	North Andover, MA	01845 508-683-5188
이희영		Hee Young Lee	262 E. Haverhill Ave	Lawrence, MA	01841 508-683-4805
임나경		Na Kyung Im	14 Commonwealth Ct. #10	Brighton, MA	02135 617-738-7656
임덕순	고미영	Douglas Sun Im	31 Park Street	Arlington, MA	02174 617-646-9866
임병규	김현수	Byoung Kyu Lim	24 Thomas Drive	Reading, MA	01867 617-942-0624
임영호	이경애	Young Ho Lim	10 Olde Lantern Rd	Acton, MA	01720 508-263-2827
장동근		David DongGeun Chang	20 Webster Street #403	Brookline, MA	02146 617-277-4863
장맹규	이숙희	Maeng Kyu Chang	121 Rollingridge Lane	Methuen, MA	01844 508-682-4560
장문기	이상은	Moon Ki Chang	19 Gibson Street	Burlington, MA	01803 617-272-9744
장병준	강시점	Pyong J. Chang	7 Reed Road	Peabody, MA	01960 508-977-0995
장세중	백혜담	Seichoong Chang, Ph.D.	2 Malt Lane	Lexington, MA	02173 617-861-9277
장승준	장신희	Seung Joon Jang	7 Steadman Road #407	Lexington, MA	02173 617-863-2297
장양술	김정림	Yang Sul Chang	132 Chelsea Street #27	Everett, MA	02149 617-381-1085
장용복	이창주	Yong Bock Chang, Dr.	4 Springdale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2-7863
장태인		Tae In Chang	12 Colonia Court #89	Stoneham, MA	02180 617-272-9744
전주서		Chu Sur Chun	12 old Brook Drive	Worcester, MA	01609 508-756-4169
전진학	유승열	Chin Hak Chun, M.D.	40 Grandhill Drive	Dover, MA	02030 508-785-1560
정경조	김하숙	Kyung Cho Chung, Rev.	10 Bayberry Drive	Chelmsford, MA	01824 508-256-5655
정귀영	최희숙	Kwi Yung Jung	21 James Street	Lexington, MA	02173 617-862-5709
정마이클	차인숙	Michael Chung	14 Coachman Lane	Methuen, MA	01844 508-858-1028
정명상	강영숙	Myong Sang Chung	133 Hemlock Drive	Westwood, MA	02090 617-320-0205
정석호		Suk Ho Chung	321 Main Street	Milford, MA	01757 508-634-8188
정세호		Se Young Chung	37 Boanard Road	Milton, MA	02186 617-963-9169
정수일	정종순	Sae Ho Jung	221 Mass. Avenue #503	Boston, MA	02115 617-536-0059
정연종		Soo Il Chung	15 Loker Street	Wayland, MA	01778 508-655-2067
정옥경		Yun Jong Chong	126 B Emery Street	Portland, ME	04103 207-773-5663
정용국	장희숙	Tracy LeBlanc	11 Johnson Drive	Newmarket, NH	03857 603-659-6112
정용훈	장명숙	Yongkook Jung	15 SaddleClub Road	Lexington, MA	02173 617-861-7508
정우진		Young Hoon Jung	80 Central Street	Andover, MA	01810 508-475-3124
정재기		James W. Chung	10 Rogers Street #226	Cambridge, MA	02142 617-577-0532
정진수	장유정	Keith JaeGi Joung	8 Lakeville Road #4	Jamaica Plain, MA	02130 617-524-6750
정향숙		Jinsu Chung	11 Suffolk Road	Wellesley, MA	02181 617-235-0529
조남규		Hyang Sook Chung	2031 Commonwealth Ave.	Brighton, MA	02135 617-783-3291
조무선	박종례	Nam Kyu Cho	8 Sawmill Road	Acton, MA	01720 508-635-9547
조봉준		MooSun Cho	173 Massabesic St. Apt.#2	Manchester, NH	03103 603-668-7912
조성구		Bong June Cho	10 Endicott Street	Andover, MA	01810 508-475-2317
조요운	임영혁	Sung Ku Cho	346 Bear Hill Road	North Andover, MA	01845 508-682-4480
조요한		Yo Yoon Cho	52 Elliot Hill Road	Natick, MA	01760 508-653-3451
조준호	김한나	Yo Han Cho	32 Suffolk Lane	Carlisle, MA	01741 508-369-7244
주상배	주일영	Joon Ho Cho	13 Lawrence Road	Plymouth, MA	02360 508-747-6492
		Sang Bae Joo, M.D.	5 Yardley Drive	Andover, MA	01810 508-475-5615

한글이름	영문이름	연락주소	지역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지케이디	Kathy Chi	150 Huntington Ave #N-C2	Boston, MA	02115	617-424-7769
진동호	설영숙	Donald DongHo Jin	2 Kimball Court Apt.#213	Woburn, MA	01801 617-932-6457
차주연	Lorissa JooYun Cha	11 University Road	Brookline, MA	02146	617-731-6979
채미해	Mi Hae Chai	10 Peartree Drive	Canton, MA	02021	617-821-1373
채위	이선덕	Wie Chai, Rev.	10 Pear Tree Drive	Canton, MA	02021 617-821-1373
최낙철	최화자	Stephen Choi	213 Katahdin Drive	Lexington, MA	02173 617-860-9426
최선희	Sun Hee Ranieri	27 Hyde Street	Revere, MA	02151	617-286-0078
최선희	SunHee Hollen	88 Apple Tree Road	Auburn, NH	03032	603-483-8807
최수길	Soo Kil Choi, M.D.	6 Harvestwood Avenue	North Easton, MA	02356	508-238-9547
최승훈	김창순	Seung Hoon Choi	13 Kristyn Drive	Northboro, MA	01532 508-393-8700
최연일	최송자	Yeon Il Choe, M.D.	211 Fox Hill St.	Westwood, MA	02090 617-326-2916
최영훈	이지원	Yung Hoon Choi	37 Woodpark Circle	Lexington, MA	02173 617-861-6068
최운집	최옥자	David UnJip Choi	34 Freeport Drive	Burlington, MA	01803 617-272-3471
최인경	In Kyung Choi	10 Pole Hill Drive	Andover, MA	01810	508-475-3935
최정율	허경희	Jeong Yul Choi	27 Hyde Street	Revere, MA	02151 617-286-0078
최종을	Chong Eul Choi	193 Maple Street #6-L	Lawrence, MA	01841	508-685-3489
최주원	John JooWon Choi	29 Peabody Terrace #31	Cambridge, MA	02138	617-492-8004
최홍균	황성미	Hong Kyun Choi	11 Bartkus Farm Road	Concord, MA	01742 508-369-0351
한권리	최순용	Kwon Ri Han	5 Laurel Drive	Wenham, MA	01984 508-468-1625
한복수	Bok Soo Han	18 Jennifer Road	Wakefield, MA	01880	617-245-6246
한상신	김혜영	Sang Shin Han, Rev.	555 Ocean Road	Portsmouth, NH	03801 603-433-7475
한순길	노진순	Soon Gil Han	5 Marigold Lane	Andover, MA	01810 508-475-7113
한승희	김경애	Steve Synghi Hahn	7 Trinity Court	Wellesley, MA	02181 617-235-4035
한윤찬	김계남	Yoon Chan Han	97 Hamstead Street	Methuen, MA	01844 508-682-3505
한장균	한혜경	Charles Huh, D.M.D.	1315 Arboretum Way	Burlington, MA	01803 617-270-4806
현은진	Alice EunKyung Hyun	41 Burnham Road	North Billerica, MA	01862	508-667-4034
현진호	David GinHo Hyun	41 Burnham Road	North Billerica, MA	01862	508-667-4034
현철우	이금주	Chul Woo Hyun	41 Burnham Road	North Billerica, MA	01862 508-667-4034
홍성찬	한영희	Sung Chan Hong	152 Shore Drive #8	Peabody, MA	01960 508-532-5209
홍윤기	Yoon Kee Hong	17 Essex Lane	Peabody, MA	01960	508-532-0946
황광서	옥선우	Kwang Seo Hwang	14 Shimer Road #1	West Roxbury, MA	02132 617-323-0459
황기동	김소정	Ki Dong Whang	18 Abenski Road	Northboro, MA	01532 508-393-3822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94년도 예산서

수입 예산

회비 (\$10 X 400명)	\$4,000.00
이사회비 (\$100 X 30명)	\$3,000.00
협회지 광고 찬조비	\$2,000.00
기타 찬조비	\$1,000.00
총수입	\$10,000.00

지출 예산

주소록 말간 보조비	\$2,000.00
시민 협회지 발간	\$2,000.00
회원 통신비	\$1,000.00
협회 홍보 활동비	\$1,000.00
소수 민족 문화활동 소개비	\$1,000.00
총회 준비	\$1,500.00
사무비	\$500.00
예비비	\$1,000.00
총지출	\$10,000.00



YOKOHAMA
JAPANESE STEAK HOUSE

Korean and Japanese Cuisine

* Teppan Yaki (철판구이)

* Sushi & Sashimi (스시, 사시미)



HOURS

Mon. 5-10; Tue.-Thurs. 11:30-3 & 5-10
Fri.-Sat. 11:30-3 & 5-11, Sun. 1-9
(Reservation for Weekend Only)

313 South Broadway, Rt. 28
Lawrence, MA 01843
(508) 689-4047
PARKING AVAILABLE

고향의 맛

신신 식품점

SHIN SHIN ORIENTAL MARKET

저렴한 가격

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508-686-0813

- 각종 한국, 동양식품
- 한국 서적 및 잡지
- 삼겹살, 갈비, 불고기감
- 곱창
- 레코드, 테이프
- 채소 및 생선류
- 각종 상비약품

HOURS Tues-Thurs: 10 to 7
Fri & Sat: 10 to 8
Sun: 10 to 6
Closed on Mondays

615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범아여행사

Pan Asia Travel Service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하듯 빈틈없고 정성스러운 손길!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20년 전통의 한국계 여행사

27 Temple Place, Boston, MA 02111
617-482-6237 / 542-5511

Kim, Chang Duk



김창준의원과 함께한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의회장단(사진: 장의성)

김창준 연방 하원의원의 재선을 후원하는 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재선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오니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Fund Raising Chairman
NamKung Yen
101 Lovejoy Rd
Andover, MA 018
(H) (508) 474-4780
(O) (508) 689-9800



신라

Korean & Japanese Restaurant

보스톤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
HARVARD SQ.의 명소 '신라'

- 찰스 호텔 주차료 2시간까지 할인
- Sake, 맥주, 각종 와인
- 각종 모임에 위한 완벽한 설비
- 신선도 제일의 스시바
- 7 Days Open (금, 토 밤 11시 까지)

점심 : 12:00~2:30
저녁 : 5:00~10:30

* 토, 일요일은 하루종일 영업합니다

617-547-7971

95 Winthrop St.,
Cambridge, MA 02138

코리아 여행사 KOREA TRAVEL CO

* 보스톤지역 지정대리점 *

* KAL * NORTHWEST
* ASIANA * DELTA
* UNITED-AIR

모든 항공권(국내선/국제선)취급

Tel : (508)634-8882

Fax : (508)634-8189

예약전화 : (800)473-1922

321 Main St.
Milford, MA. 01757

대한항공 아시아나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델타 유에스에이 아메리칸에어 기타



*Special Weekday Daytime Rates
*Senior Citizen Discount

Darts



BUSINESS HOURS
Mon-Wed: 12 PM - 12 AM
Thur-Sat: 12 PM - 1 AM
Sun: 1PM - 12 AM

Billiards



20 Big "G" in an Upscaled Billiard Parlor

STADIUM PLAZA

160 Winthrop Ave., Lawrence, MA
(Junction Rts. 495 & 114 - Across from Cinemas)

508-689-9800



신영목 치과

DR. FRANK SHIN, D.M.D.

현 Boston University 치과대학 임상교수
Family Dentistry



- * 미용치과(본딩, Bleaching)
- * 치과 전반 치료가능
- * 각종 보험 취급
- * 전화 예약 요함

(617)265-5606, 265-3803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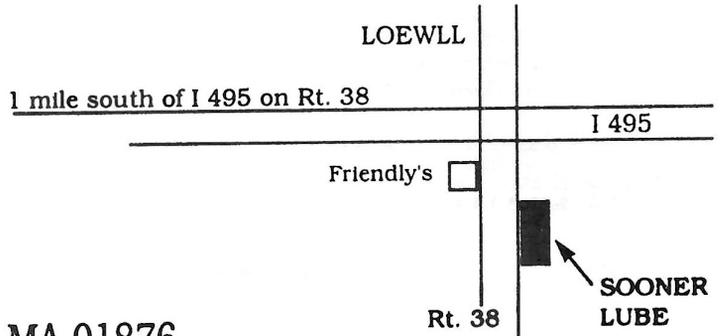


- * TUNE UP
- * 15 POINT CHECK UP
- * LUBE & OIL+ FILTER CHANGE
- * TRANSMISSION FLUID & FILTER CHANGE
- * RADIATOR FLUSH
- * HEAD LIGHT
- * BATTERY

TEL: (508) 858-0070
734 MAIN ST. TEWKSBURY, MA.01876

*여러분의 귀한 차를
안락한 OFFICE 에서
COFFEE 를 마시는 동안
완벽하게 SERVICE 합니다.

대표: 김 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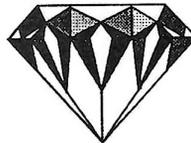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매주 일요일 12시-5시
까지 OPEN 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톤 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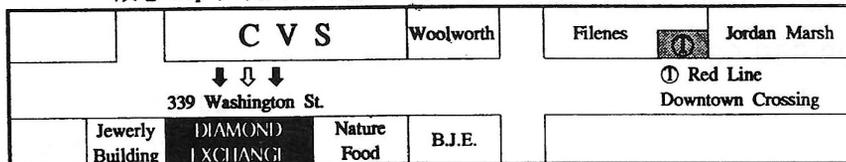
(THE DIAMOND EXCHANGE)

한국말로 된 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
하세요



- ◆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별할인 판매 ◆
- ◆ 각종 등급의 다이아몬드 구비 ◆
-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특별 디자인 ◆
- ◆ 14K, 18K 금반지, 목걸이, 팔찌 도매가 제공 ◆
- ◆ 보석 감정, 재가공 상담 및 즉석 Cleaning(무료) ◆
- ◆ 시계 배터리 교환(무료) ◆

339 Washington St., Boston-Downtown, 전화 (617) 723-7979 / 723-3029 / 491-6227(야간) Mr. & Mrs. 李
비슷한 Shop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 한국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하세요



임 나경 상담소

NAKYUNG IM Counseling Services

PSYCHOTHERAPIST
NAKYUNG IM, LICSW, ACSW, BCD.

Licensed Independent Clinical
Social Worker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
Board Certified 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er

20 years of experience, providing individual,
group, couple, family therapy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20년 경험, 어린아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카운셀링 함

- 가정 / 대인관계문제
Marriage / Relationships
- 자녀문제 / 자녀 양육 문제
Play therapy / Parenting Skills
- 직장/학교 생활문제
School / Career concerns
- 신앙문제 / 풍습 문제
Religious / Cultural Issues
- Stress Management
- Domestic Violence
/ Forensic psychology
- 마약 / 알콜 중독
Drug / Alcohol abuse
- 어린아이 후견인 / 구타
Child Custody / abuse
- 성적 구타
Sexual abuse(Victims/offenders)
- 우울증 / 공포증
Depression/Panic Disorders
- 신경쇠약, 파민 / 정신착란증
Mental Disorders

상담내용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됨(Counseling is confidential)
건강보험에서 비용부담함
Most insurances + HMO's accepted(Tufts, Bay State, Harvard & etc.)

308A Harvard St., Brookline, MA 02146

Tel.: (617) 738-9622



PARTS SERVICE INSTALLATION

ALL INSURED & LICENSED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들이 Quality Work를 보장합니다.

Central Air Conditioning & Heating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설치

Other Services

- * Duct Work
- * Exhaust Ssystems Installation
- * Furnace Replacements
- * All Major Appliance Repair

CALL US TODAY, 5 DAYS A WEEK!

Tel. (617) 547-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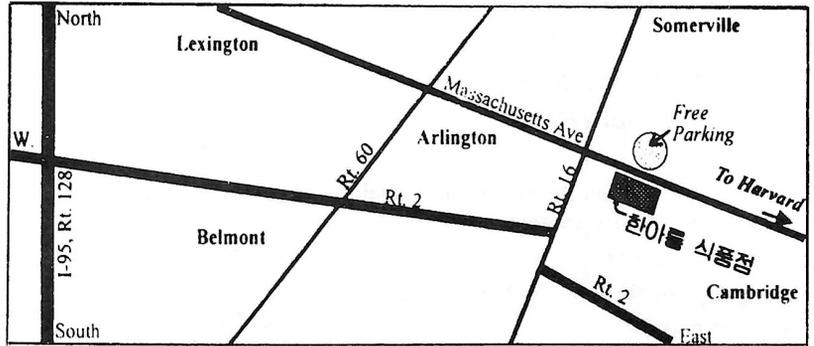
우리말 상담 Peter Lee

24 Baystate Rd., Cambridge MA 02138

보스톤 한아름

성심 성의껏 맞이 하겠습니다

- ☞ 최고급 육류 일체
- ☞ 싱싱한 야채
- ☞ 패키지된 밑반찬 일체
- ☞ 모든 주문음식 환영
- ☞ 각종 비데오



2376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40

617-547-8723

< 영업시간 > 월요일 : 낮 12시-저녁 7시, 화-토 : 오전 9:30-오후 8시, 주일 : 오전 10:30-오후 7시

Jay Lee Realty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 ◇ Mortgage Application
- ◇ Residential
- ◇ Commercial
- ◇ Business Opport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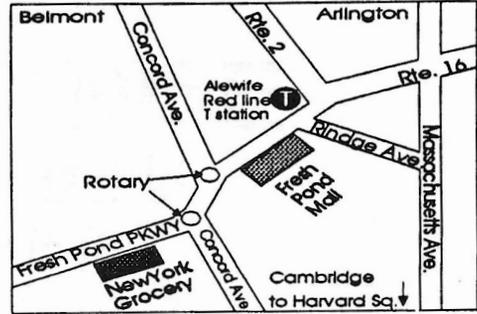
827 Bolyston St., #18,
Boston, MA 02116
Tel. (617) 236-0960
이재신



뉴욕식품

세히 복 많이 받으세요

- ◎ 각종 비디오 완비
- ◎ 다양한 밀반찬
- ◎ 전통의 육류 일체
- ◎ 싱싱한 야채류
- ◎ 떡, 도시락, 주문음식 환영
- ◎ 노에비아 화장품



◎ 편리한 위치와 무료 주차장

매주마다 바뀌는 세일 품목

뉴욕 식품점(A & K Food Market)
355 Fresh Pond Parkway, Cambridge, MA 02138
Tel. (617) 868-9850 김법철

Allston T.V. & Stereo, Inc.
Authorized Dealer of

SONY **PIONEER** **Panasonic** **Canon**® Etc.
The Art of Entertainment

190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 (617) 787-1667, FAX (617)782-7723

Best Place to Save Time & Money
항상 저렴한 가격과 정직 · 친절한 봉사를 약속드립니다.

Open Hours
Mon.-Fri. 9:30 - 7:30pm
Sat. 10:00 - 7:00pm
Sun. 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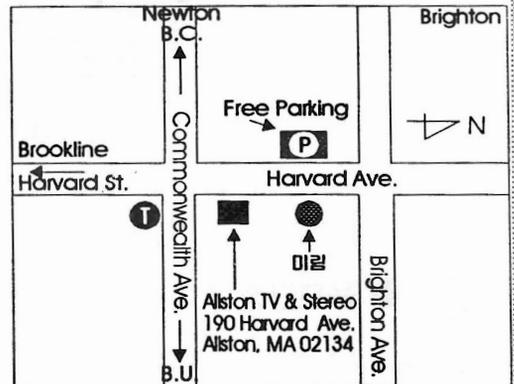
“신상품 소개” → 현재 가지고 계신 음향 system을 Karaoke로 만들어 드립니다.

Pioneer MA-9 Mic Mixer \$299.⁰⁰

- Connets to Tape Monitor Loop to turn your stereo system into a full - Fledged Karaoke system!
- 3 Microphone Input with Volume Control
- 9 step Digital Key Controller
- Vocal Cancel, Vocal Partner, Digital Reverb.

★ "Bonus!" **Free Microphone with purchase**

New!!



코리아나

코리아나 정식 개시

정갈한 한식의 전통
일식의 깔끔함
코리아나에서 함께 하세요

KOREANA

Restaurant

FREE KARAOKE Every Night

영업시간 : 11:30AM ~ 1:00AM
7 Days a Week

SUSHI BAR

(617)576-8661

154-158 Prospect or Broadway
Cambridge, MA 02139

-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웨이트레스 구함
- Catering 단체음식주문

아리랑 레스토랑

부패 전문

MSG 없는 음식
부담 없는 가격
고유의 참맛

잔치상 전문

회갑, 돌, 생일 전문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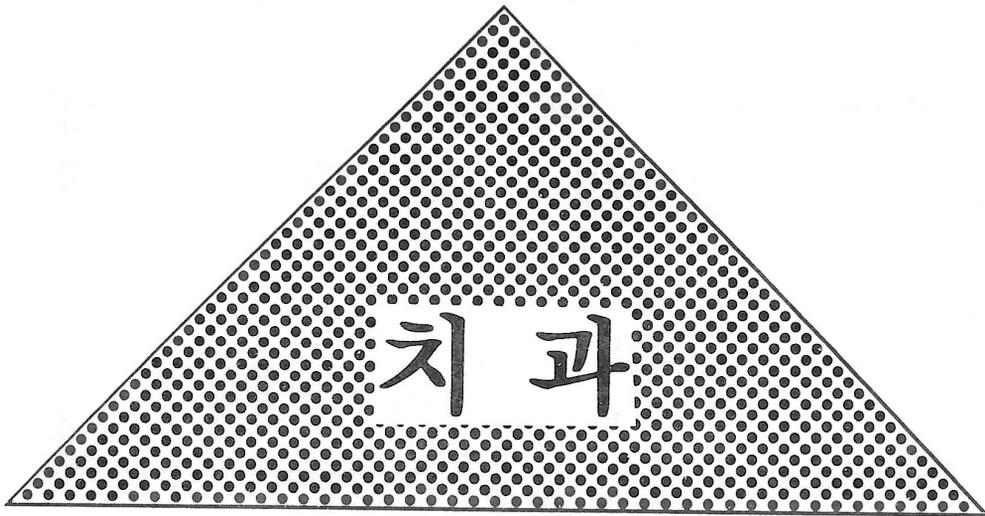
ARIRANG House
162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Tel. (617) 536-1277
Near Symphony Hall

주 7일 : 낮 12시 - 오후 11시

CHARLES C. HUR
D.M.D.

(617) 861-8978

NEW PATIENTS
WELCOME



- ▲ 일반치과
- ▲ 유아치과
- ▲ 미용치과

394 Lowell St., Suite 3
Lexington, MA 02173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우촌

WooChon

오늘 우촌으로 초대합니다

일품요리
특미 냉면
왕갈비
곱창 낙지 볶음
해물 전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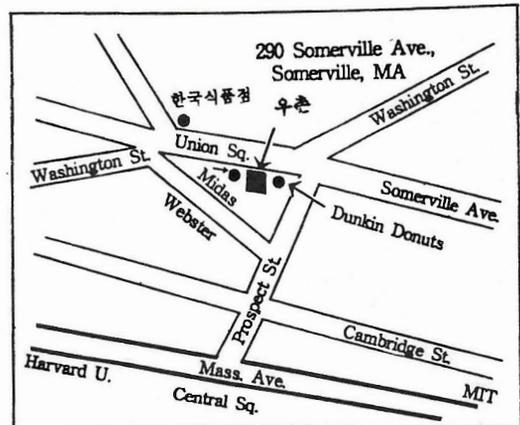
KOREAN-JAPANESE RESTAURANT
UNION SQUARE
290 SOMERVILLE AVENUE
SOMERVILLE, MASSACHUSETTS
(617)623-3313

- 각종 대소연회
- 7가라오케 완비
- 4 - 20명까지의 아담한 연회실, 총 좌석수 100석
- 무료 주차장 5:00PM 이후 & All Day Sunday
- 1½ mile from Harvard & MIT

>> Waitress 구함 <<

영업시간

월 - 목 ; 오전 11:30 - 오후 11:30
금 - 토 ; 오전 11:30 - 12:00 Midnight
일 ; 오후 12:00 - 오후 10:00



국제보석상

International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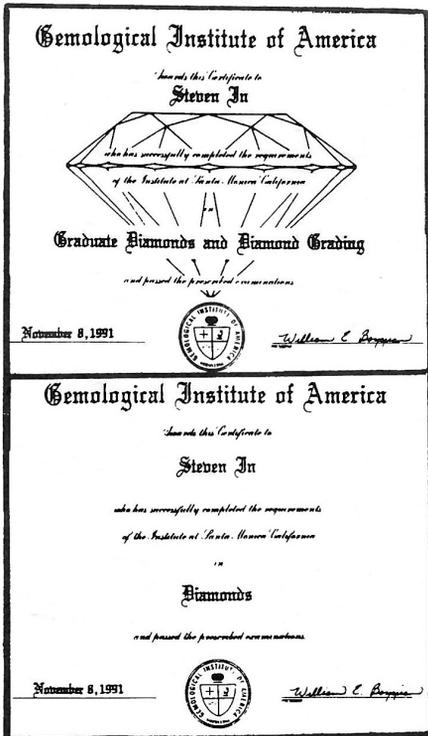


- 모든 Size의 Diamond와 각종 등급의 Diamond를 구비함은 물론 Ruby, Sapphire, Emerald, Pearl, Opal 등 고급 보석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 14K Gold Jewelry는 물론 18K Gold와 14K Gold 애기 돌반지, 팔찌도 있습니다.
- 특히 약혼, 결혼, 생일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International Exchange is proud to announce that Steven In has earned the Diamond and Diamond grading certificate of G.I.A.

특히 다이아몬드는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G.I.A)를 졸업하여 Diamond 감정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하고 있으며 감정서를 첨부해 드리며 가지고 계신 Diamond도 무료로 감정해 드리며 보석을 재 가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국제보석 감정사, 인기환 (Kevin In)
인승환 (Steven In)



345 Washington St., Boston, MA 02108
(B) 617-523-2553 / (H) 617-894-4911

